

# 오늘에서 보는 孔子의 철학적 읽기와 유교의 진리

\*

## 1. 구성적 사유와 해체적 사유

孔子 儒學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  
가  
 , 가  
 , 思惟學  
 , 가

---

\*

. 가  
 , 가  
 .  
 , 가  
 .  
 가 ,  
 < >(constructive thinking) <  
 >(deconstructive thinking) 가  
 .  
 가 가 .  
 가  
 .  
 가  
 .  
 가 가 用  
 , .  
 心  
 가  
 .  
 酩酊  
 .  
 明淨  
 .  
 가  
 .  
 가  
 .  
 가

가 ,

가가 .

가

,

가 가 가 ?

, (constructionism)

(anthropomorphism)

, (deconstructionism)

(physiormorphism) 가

.

(nature) (human nature)

(humanism)

.

.

,

,

.

.

.

,

가 . 神 模範因(exemplar cause)

神 (creature) 가 .

가 ‘人子(Filius Hominis=the Son of Man)’

人子

『 』 「 」 7 : 13 ,

神子が 人子

人子が

人性 神性

(theocentric thinking)

(anthropocentric thinking)

가

가

(naturalism)

가?

』 34 ‘道

(愛養萬物而不知主)’

道

가

가 , 明鏡  
 止水  
 가 .  
 가 ,  
 ,  
 無想之想 無念之念 .  
 .  
 가 .  
 (pertinent  
 opposition)  
 ,  
 . , 가  
 가 가? 가  
 가 가 .  
 , 가 가  
 ? ,  
 ,  
 .  
 (egoism) . 가  
 가 .  
 가  
 가 가 ,  
 仁者가 孔子가 ,  
 我相 我相 가 人相 成佛  
 ,



가

(P. Ricoeur)

“ , .”(L'homme est *radicalement* mauvais et est *originairement* bon.)

(Thomism)

(Augustinism)

(S. Thomas)

神

가

가

가

가

, 孟子

君子

觀

仁

仁

가

, 가

가

“

仁

가?

가

仁

, 仁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述而:

29)

仁

顏淵

仁

,

“

(克己)

禮

가

(復禮)

仁

가 仁 . 仁 ,  
?”(顏淵: 1) 仁

가

가

.” “ !

.”(衛靈公: 12)

가

.” “  
君子가

義

.” 道가

.”(道之不行 已知之矣)”(微子: 7)

道가

.” “

.” (辟世),

.” (辟地),

.” (辟色),

.” (辟言)…….”(憲問: 14)

.” ‘  
?”(是知其不可而爲之者與?)”(憲問: 38)

가

’無可 無不可’(微子: 8)

가



가

가

仁 德治가  
荀子 禮治가

德

가 內聖外王論 가

가 . 가

가

(Hegel)

道學

實學

가

克己復禮가 仁

〈善羣〉( ) 禮

＜大神＞( )

‘博施濟衆’ 仁

가

我相 人相 ,  
心

가 가

## 2. 孔子와 그 유교의 특이성과 仁의 의미

孔子 가 가?

. 가  
,

無爲的 , 能爲  
的 가 .

當爲的 ,  
가 有爲的

儒家 가 , 基家  
가 가 . 基  
家

. 가 (catholicism) ,  
(protestantism) . 가

神

,

가

.가

가 .

가

.

.

,

狡智

.

가

,

.

.

.

,

,

가

가

가

가

.

가

.

‘

,

’

( : 14-6)

法身

,

가

應化身

.

.

『

』

가

道 實相

.

가

道

,

가

道가

孔子

.

19

. 가 가 道가  
 , 가  
 覺者 ,  
 .  
 .  
 가  
 道 道 가  
 가  
 道 가  
 가 가  
 가 가  
 . 道  
 .  
 가  
 .  
 가  
 가 .  
 가  
 .  
 神子  
 .  
 .  
 玄妙之道 , 道

道

道

가 物學的( ) 道  
가 心學的 道가 , 가  
道

(das Seiende) 空  
가 空 가

覺者 神  
가

道  
(朝聞道 夕死可矣)(里仁: 8) 가  
道 가 , 道  
道

“  
, (好學) .”(公  
冶長: 28)  
『 』 가 好學

가 .

道 願行

가 『 』

가 가 가 ,

가 가 仁 .

? , 가

, 가 . 가

가 .

가 가 仁 가 . ‘仁

’(梁惠王下) ,

. “ 仁 禮

, 仁 樂 ?”(八佾: 3) 가

, (gratuitous

being)가 , . 가

. 有子(有若) ,

. “...

道가 . 孝弟 仁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學而: 2)

. ,

가 . 仁

. “ 道

,

道  
 . 가 仁 , 가?  
 仁 ,  
 仁 , 仁  
 .”(里仁: 5)  
 仁  
 가 . 仁  
 ,  
 가 가 . 仁  
 .  
 가 . “仁者 安人 , 知者 利  
 仁 .”(里仁: 2) ‘知者 樂水 仁者 樂山  
 . 知者 (動), 仁者 (靜). 知者  
 (樂), 仁者 (壽)’(雍也: 23) . 가 ‘仁  
 者安人’(仁者 ) 가 ‘仁 人之  
 安宅(仁 )’(離婁上: 11)  
 人 仁 <rên> . 能記的 所  
 記的 . <人> <仁> ,  
 . (安人)  
 . 人-間  
 가 . 가 , 가  
 < >(inter-subjectivity) .  
 .  
 . 仁 가 孝弟  
 가 가 가 가  
 .  
 (subjectivity)

(inter-subjectivity) . 仁

,  
가 .

가 . 가  
가?

, 가 , 仁

. 仁

(知) , 仁  
가 仁 . ‘仁者 樂山 , 知者  
樂水 .’ 仁 仁

.  
(樂)  
仁者 知者

‘利人’ .  
가 仁 가  
仁 . “ , 가  
(剛), 가 (毅), (木), (訥)  
仁 가 .”(子路: 27) 가

,  
, 原木

,  
仁 가 가 . ‘剛’  
, ‘毅’



가 , ‘木’  
‘訥’  
? 가  
가  
가 仁 .  
仁 가? 『 』  
가 . 仁  
. “ 가  
.”(述而: 3)  
“ 가 가  
, 가  
.(則吾未之有得)”(述而: 32) “ 聖人 仁  
人 ?  
, 가  
. (…)”(述而: 33) 가  
道  
, 가  
가 .  
. ?  
가 苦海 .  
. ,  
가 .  
가 玄妙之道  
玄妙之道 -

(post-modernism)

差延(differance)

(textuality)

가

緣

起法

性起法

.

.

道/佛家

,

,

가

.

.

,

.

가

.

가

.

.

.

佛家

道家,

基家

儒家

.

가

가

,

가

,

.

,

.

,

.

儒家

基家

.

儒家

基家

,

( )

(克己復禮)

仁

.

가

가

.

反神的

가 가가

가 가

가

가

20 가

가 (Gabriel Marcel) ‘ (le monde cassé)’

가 가

君子

道

( 가

)

(

)

가

가

求道者

道

道

革正

(里仁)’

가

가

가?

가

學人

가

未濟  
 가?                      가가                      未濟  
 ,    가    가,                      가  
 既濟                      가  
 가?                      가    가  
 .                      가  
 .                      가                      未  
 濟的                      既濟的  
 . 既濟                      .  
 가  
 .                      가                      ,  
 가                      가                      .  
 가                      가  
 ,  
 時中的                      .  
 가  
 .  
 가?  
 ,    가    가    가    .  
 가                      .                      (free will)  
 가  
 가                      .    가  
 .                      . “                      道                      ,  
 道가                      .(人能弘道 非道弘人)”(衛靈公: 28)

가 , 가 가  
가 , 가 .”(子罕: 18)  
가 .  
가 道 .

### 3. 세상을 한 가지로 읽지 아니한 휴머니스트 孔子

仁政 德治 . 가 가  
『 』 「里仁」 가  
가 가?  
가  
禴( ) ,  
가 .  
(八佾: 11).  
『 』 「爲政」  
敬忠 孝悌 ,  
“ . ,

가

. 匡

,

가

,

曾參

•

•

,

,

仁以爲己任 不亦重乎？死而後已 不亦遠乎？”(泰伯：7)

가

가

가

•

•

德治

理想

6

,

,

가

6

仁

•

J

가? . “ 가

.”(八佾: 12)

가

, 가

. 仁政 德治 가

가

가? “

가

,

가

河圖가

, .”(子罕: 8)

. “ 가 .

.”(述而: 5)

가 가

, 가

가

. 『 』

「憲問」

. 가

石磬( )

, 가

가

가

.

가

.

가

. 「微子」

가 가 가

가

.

가

. 가

‘

,

?

도가

,

가?

(鳥獸不可與同羣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 丘不與易也)’

가

가?

-  
가

- 曾參

가

栗谷

가

가

가

가

가 <剛毅>

<木訥>

가

仁

가

가

巧言令色

“...

가

?”(吾豈匏瓜哉? 焉

能繫而不食?)”(陽貨: 7)

가

가

“

?

?

.”(子罕: 12)





, ,  
 . 가 仁 .  
 .  
 仁 <過>  
 <不及> <執其兩端 用其中>( , 仁  
 가 ) 가 , 仁  
 . 定體가  
 . 가 仁 佛家 基家  
 . “ 仁者 ,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里仁: 3)  
 仁 不仁者  
 . 가 不仁者 가  
 定體가 . 仁說 中庸說 가  
 가 .  
 가 가 가 時中  
 가 ‘利仁’  
 . 가 ‘知者 利仁’ 「里仁」  
 . 가 , ‘利仁’  
 <利人> .  
 仁 ?  
 . ‘生而知之者가 ,  
 (我非生而知之者 好古  
 敏以求之者也.)’(述而: 19) .

(察) 可 不可

(察)

(populism)

가 . “

.(衆惡之 必察焉. 衆好之 必察

焉)”(衛靈公: 28)

가

時中 道

『 』

「學而」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가?’

‘

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學而

時習之’

時中

가 子路

道

가

“...仁

(愚) . 知( )

, (蕩) . 信( )

(賊) .

直( )

가 (絞) . 勇( )

(亂) . 剛( )

(狂) .”(陽貨: 8) 道 ,  
道 , 가

仁 가 가

(溫故)가

(知新)

“ 가

, 義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里仁: 10)

明鏡止水

明鏡止

水 仁

“ 가

,

,

.(子絕四 毋

意 毋必 毋固 毋我)”(子罕: 4)

<四毋 >

時中的 仁

時中

仁

時中

義

義 가? 가

義

私

利 公義

(見利思義).(憲問: 12)

利

가가

『憲問』 「憲問」  
 ‘修己而安人’( ) ‘修己而安百姓’  
 ( )

義 가 가  
 義가 가  
 功利  
 (泰伯: 19), 子張 仁  
 ‘(恭), ‘(寬), ‘(信), ‘  
 (敏), ‘(惠) 가

(陽貨: 6). 先 修己 後 安人  
 <內聖外王>( )  
 . <知者利人>  
 時中

가  
 < >  
 가 殷  
 仁者가

紂 庶兄 微子  
 叔父 箕子 , 叔父 比干 가  
 (微子: 1). 가 가 (仁)  
 , 冉伯牛  
 가 (先進: 8/雍也: 8). 가

가 가

가

· ‘人能弘道 非道弘人’( 道 , 道가 )

· 季孫 公伯寮 가

· 子服景伯

· “...도가 , 道가 ...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憲問: 37)

內聖外王的 仁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君子不器’ (爲政: 12)

· 孔門 10哲

顏淵, 閔子騫, 冉伯牛, 仲弓

가 (器) 가? 宰予

子貢, 冉有 子路, 子遊 子夏

가 (先進: 2). 가 가

祭器 가

〈瑚璉〉 (公冶長: 4).

가 가 가 가 가

,

가

.

. “...回(顔淵) 道 ,  
 < 가 가 /  
 .>(屢空) 賜(子貢) 天命 (不受命),  
 .”(先進: 18) <屢空>  
 가  
 .  
 가  
 勝己之私 .  
 ( 王畿)  
 眞己卽無己  
 .  
 天命 ,  
 理財 가  
 가 .

#### 4. 時中과 未濟로서의 진리

가 가 ?  
 가 內聖 가 ‘克己復禮’ 가  
 . ‘克己復禮’ 가?  
 .  
 禮 가 ,  
 ( 李贄)  
 <絶四> <四毋>(毋意, 毋必, 毋固, 毋我)  
 ?  
 內聖 가, 內聖

가? 가 勝己 己而安百姓 가? 가 好學 無己 ‘修  
『 』 「人間世」 「大宗師」 ‘心齋坐忘’  
道 仁  
? 『 』  
가 가 .  
가  
(子罕: 19),  
. 가  
가  
,  
(爲政: 9). 安貧樂道  
가 . “  
,  
,  
,  
. 가 .”  
(泰伯: 5) , 道 仁  
. 道  
『 』 . 道  
道  
道  
(公冶長: 9).  
가 가 (衛靈公: 4).  
가 子路, 曾皙, 冉有, 公西華



가  
 , 曾皙  
 가 曾皙(曾參 點)  
 沂水 舞雩  
 (詠而歸) 가  
 (喟然), 曾點  
 (先進 25).  
 , 가 仁  
 가  
 < (喟然)  
 仁 가  
 , 『 』 心齋坐忘 가 가  
 道  
 가  
 가  
 가  
 가  
 가  
 (心齋)  
 가 「 」  
 「 」  
 坐忘  
 가 가 道  
 道

가 가 仁 .  
 道  
 가? . 道  
 . 內聖的 修己 外王  
 的 安百姓 <里仁> 道 ,  
 ,  
 가  
 . , 가  
 가 가 가  
 가 ‘木鐸’ 가  
 .  
 가 가 ‘ 가 ,  
 ,  
 . 가 .  
 道 仁 理想性  
 (Ideality) 가 .  
 가 格物致知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道  
 『 』 . 가  
 仁 『 』 「泰伯」  
 , 가 가  
 가  
 . 가 「學而」 가  
 忠 信, 가  
 心學化 .  
 가 「泰伯」  
 가  
 『 』

가 ‘ 가 ,  
(八佾: 13)

가  
“ ,  
가? ... , ?(未  
能事人 焉能事鬼?...未知生 焉知死?)”(先進: 11) 가  
가 ,

가  
가 ,  
가  
가 道  
道

가  
가  
가

曾子 子思  
孟子 程伊川 , 顏子 程明道  
陸象山 가 가

가 . 가 가

가 . 가 虛氣 ,

가 가 事實性(facticity)

道 .

基家 ,

外經

「 (Thomas) 」 ,

가 ,

(3 ), ,

가 (113 )

. 13-14

(Johannes Eckhart) 神 無 無善無惡

가

.

가 가

가 가

가?

『 』 ,

가

仁

가

가 . 가 가

가

. 가 , 仁

가

가 .

가 . ‘君子不器’ ,

가 子貢

『 』

가 荀子 ,

가

『三國志演義』

가 史劇

(Reality)

가 , ‘足食’( ), ‘足兵’( ), ‘民信之’( ) (顏淵: 7).

가

茶山 가 ,

가

가

가

冉有가 가 가

가 , 가 가

가

(富之) , 가  
 (敎之)  
 (子路: 9).  
 가 가  
 仁 가  
 ,  
 가  
 가 가  
 . 管仲 仁者 .  
 가 . 鄭 鄭子産  
 (憲問: 9/公冶長: 15).  
 가  
 가 糾  
 仁者가 가 .  
 糾 小白 齊襄公 ,  
 糾 管仲 召忽  
 , 小白 鮑叔牙 .  
 가  
 가 , ,  
 仁者  
 가 가 가  
 , 가

가

,

· 匹夫匹婦  
가 (憲問: 16/17).

·

가

가 伯夷  
叔齊가 ,

·

, 仁  
가 .

(述而: 15). 가

紂 武王 가

·

가? 가 .

仁 仁

· 仁 ,

·

仁 ,

가 가 . 가

,

禮 (八佾: 22).

‘小器’( )

가 .

·





『 』 가 .  
가 ,  
. .  
. .  
, .  
가  
가  
가 ,  
.  
가 (子罕: 11).  
가 .  
道  
,  
,  
.  
,  
.  
,  
.

?

卦가 未濟卦

未濟

가? 未濟

가? 未濟 . 佛家 基家

가 人子가

既濟

儒家

既濟

가

가

가  
無道

有道

道

未濟

未濟

가

가

衡平性

가 時中

時中

時中

顏淵的 無

爲

能爲

曾參的 當爲論

子貢的 有爲論

가

가

가

가

가

가 時中 가 가 , 內聖的 가  
가 時中 가 , 利器  
가 가  
時中

進: 16) ‘過猶不及’(先

未濟 가 가? 가  
‘吾道一以貫之’ ‘

‘夫子 道 忠恕 (夫子之道 忠恕而已矣)’(里  
仁: 15)

가  
가

忠恕

時中 一以貫之

가?

가

, 가

道가

가?

道가

가

가

未濟

,

未濟

道

時中之道가

가?

가 未濟

道

,

가

가?

(Sphinx)가

(Oedipus)

< 가, , > 가 < > 가  
 . 가 가 .  
 . 가 가 .  
 . 가 가 가 가  
 , 가 .  
 ,  
 .  
 .  
 . 佛家 道家  
 道  
 . <Physis>(Φύσις) 道가 가  
 . <Physis>( ) 道 <禪定> . 儒家  
 基家  
 道 . <Nomos>(Νόμος) 道가  
 가 . <Nomos>( ) 道 <理性>  
 . 가  
 . 가  
 가?  
 .  
 가 .

道 가

理性

· 道學

學 , 實學

學 · 가

道

· 物化

가

· <Nomos>

가?

· ‘鳥獸

· 가 ,

· 仁

反

가?

· 가

· 가 가

· <Nomos>가

· 가

가 (moral

value)

가 (economic value)

< (partiality)

· 孔子

가

가

가

· 未濟

· ‘學而時習之’(

道

· 熟成 )

· 求道

(不亦說乎)

? 가

(hermeneutics)

‘學而時習之’ 가 가?  
道 가  
道 가  
(有朋自遠方來) 가?(不亦樂乎) 利人的  
(利他的) 道  
(人不知不<sup>慍</sup>慍).  
自利的 悅樂 , 利人的 道  
가  
好學 『 』 「學而」 ,

## **Philosophical reading on Confucius and the truth based on him**

Kim, Hyong-hyo

Confucianism is named constructive thinking as Christianity in Western society. This kind of interpretation may be compared with Taoism and Buddhism which are characterized as a deconstructive thinking. As it were, Confucianism as well as Christianity adopts philosophically anthropomorphism as a kind of humanism, while Taoism as well as Buddhism can be entitled under the name of physiomorphism as a kind of naturalism. Anthropocentrism like theocentrism is considered a constructive thinking. But naturalism in contrast with humanism may not be called like a physiocentrism, because it would be unimaginable that nature is aware of itself as center of the universe.

Confucianism contains dream and will which aims at realizing the ideal of benevolence. Confucius himself is full of voluntary intentions to achieve the ideal of benevolence. So he insists that benevolence is not at all remote; no sooner do I seek than it has arrived. It wouldn't be accidental that Confucius replied that observing ritual propriety through self discipline would become close to benevolence, when Yan hui(顏回)

inquired about benevolence. None the less, he confessed on the other side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complete benevolence. For he never saw that man is fonder of virtue than of physical sexual beauty. And he urged: "the Way will not prevail. This is known already." So to speak, Confucius' ideas are not simple. This means that Confucius is not reduced to a simple mentality. For example, Confucius approached in many ways benevolence, but he never defined it conclusively. This signifies his attitude is very open towards benevolence. This symbolizes also his mind is all the more opened towards man. Because benevolence is similar to essence of man, thinking about the former is parallel with thinking of the latter. This kind of way of thinking leads to make us understand how Confucius was very eager to seek for Way in open mind. Since he saw the world in such a mind, he did not close the world-view definitely, but let it unfinished. So he did not see truth of the world as finished.

In this sense Confucius did not read the world only in an unique point. He read roughly the world in three points. Nevertheless it seemed that he stressed upon a point mainly, that is to say, upon the Way to transform the world morally. This is a Way to moral obligation. It seemed that one of his disciples, Zengshen(曾參) followed this line. The Way urged by him is converged into filial piety and brothership as well as loyalty and mercy. Zengshen among others was charged with mission to make the world morally better which was losing Way to virtue. But Confucius seemed to throw probably doubt on that conviction deeply in his mind that the world could be changed for the better through the effort of moral obligation. So, judging that it would be too difficult to realize the idea of inner sage developping to outer king, he could not help admitting on the



other side the idea of technological politics by which the goal of benevolence might not be fulfilled teleologically, but for a shift. This kind of making a shift for the sake of benevolence leads to maintain national affairs in good defense, good economy and good public security. This Way is not for moral obligation, but for technical competence. We can count Zigong(子貢) as a representative for this Way among Confucius' disciples. It seems that Zigong pertains to the followers of Guanzhong(管仲) who made as a prime minister of Ji(齊) his country very strong and very rich. We reckon Shunzu(荀子) is a follower of Zigong. We think that Zengshen's Confucianism is moralistic, while Zigong's Confucianism is pragmatic.

On the other side Confucianism can be interpreted Way of non-activity initiated to Yan hui. Moreover Confucius himself is likely to express his mind for non-activity, when we read a assertion saying in *the Analects* that Confucius abstained from arbitrary speculation, from making something certainly, from obstinacy to his own, and from absorption into his selfishness. In addition to this, Confucius said that Exemplary person( ) in making his Way in the world is not bent on nor against anything, his going with what is appropriate. This would be also able to be considered a Way to non-activity. The Way of non-activity has not been enhanced for long time by the traditional Confucianists in China untill the doctrines of Wang Yang-ming. Therefore we can affirm that Zengshen's Confucianism is followed by the doctrines of Chushi( ), whereas Yan hui's Confucianism is succeeded to Wang Yang-min, and Zigong's Confucianism is taken over as a practical learning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e can urge that Confucianism consists of threefold views, of which the Way to moral

obligation is of main stream, while the Ways both to non-activity and to pramatism are covered under the surface.

The case being so, is it not possible to assert that the thinking and truth of Confucius would not be fixed on a certain point, but consist in pointing out always the Way of golden Mean and variously selecting the truth optimum to each historical situation? In such a meaning we can say Confucian truth is not once for all decided, but always essentially pending.

： ， ， ，  
 ， ， ， 仁禮 ， ， ，  
 ， 道 ， ， 未濟既濟 時中 ， 學 思 四無  
 ， ， ， Physis, Nomos